

결혼 꺼리는데 코로나까지...신혼부부 1년 새 8.2만쌍 줄어

통계청, '2021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 발표
결혼 5년 내 신혼부부 118.4만→110.2만쌍
평균 자녀 0.66명 불과...5년차에 겨우 1명
맞벌이 부부, 외벌이 부부보다 애 덜 낳아

지난해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가 8만2000쌍이나 줄었다.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적 추세 속에 코로나19로 계획했던 결혼식마저 미루게 된 영향으로 보인다. 결혼하고 4년차까지는 자녀 수가 평균 1명도 채 되지 않는 등 출산도 늦추는 추세다.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혼인신고를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는 110만2000쌍으로 전년(118만4000쌍)보다 7.0%(8만2000쌍) 줄었다.

2017년 138만쌍이던 신혼부부는 2018년 132만2000쌍, 2019년 126만쌍으로 6만쌍 안팎이던 감소 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7만6000쌍으로 커지더니 지난해에는 더 확대된 모습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과 청년층 인구 감소 영향으로 신혼부부는 해마다 줄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욱 심화되면서 작년에는 감소 폭이 더욱 컸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10쌍 중 2쌍은 재혼부부다. 남편과 아내 모두 초혼인 부부는 지난해 87만1000쌍으로 전년(93만8000쌍)보다 줄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재혼이거나 둘

모두 재혼한 재혼부부는 22만7000쌍으로 역시나 감소했지만 전체 신혼부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0.1%p) 늘었다.

혼인 연차 별로는 1년차가 19만2000쌍으로 전년보다 10.4% 감소했고, 구성비도 17.4%로 가장 적었다. 해마다 결혼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기존 결혼 계획을 미룬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신혼부부 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 수원(2만8100쌍), 성남(2만300쌍), 고양(2만3900쌍), 화성(2만7600쌍), 충북 청주(2만300쌍), 경남 창원(2만1100쌍) 등 수도권 신도시나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은 신혼부부가 2만쌍이 넘었다.

반면 전북 장수(272쌍), 전남 곡성(265쌍), 구례(277쌍), 경북 군위(217쌍), 영양(203쌍), 경남 의령(290만쌍) 등 농촌 지역은 300쌍 미만으로 신혼부부 보기가 어려웠다.

신혼부부 자녀 수도 줄고, 아이를 갖는 시기도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혼부부 87만1000쌍 중 자녀가 있는 부부는 47만2000쌍으로 전체 54.2%로 전년보다 비중이 1.3%p 낮아졌다. 평균 자녀 수는 0.66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감소했다.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혼인 4년차(0.86명)까지도 평균 1명에 되지 않다가 5년차(1.05명)에 이르러야 평균 1명을 겨우 넘겼다. 유자녀 비중도 혼인 3년차에야 무자녀(42.9%)보다 많은 57.1%로 나타났다.

경제활동별 자녀 현황을 보면 맞벌이 부부의 유자녀 비중이 49.6%로 외벌이(60.5%) 부부보다 낮았다.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 비중은 49.6%로 외벌이 부부(60.5%)보다 10.9%p 낮았다. 맞벌이 부부 평균 자녀 수도 0.59명으로 외벌이 부부(0.74명)에 비해 0.15명 적었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1%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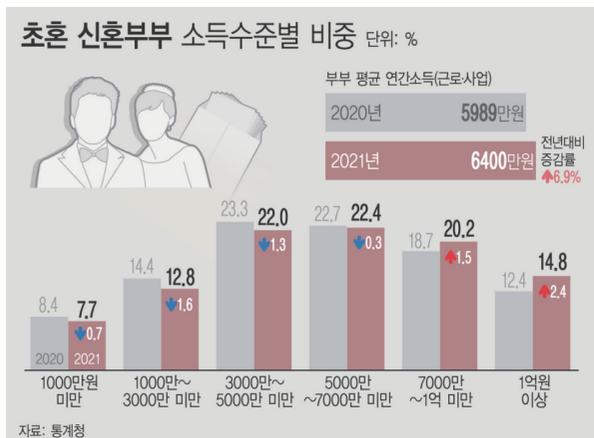
지 않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62.1%)보다 13.0%p 낮았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59명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0.77명)보다 0.18명 적었다.

주택 소유 여부도 자녀 유무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중(59.9%)이 무주택 부부(50.1%)보다 높고,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73명으로 무주택 부부(0.60명)에 비해 0.13명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

신혼부부, 소득 첫 6천만원 돌파...빚 1억5300만원 '역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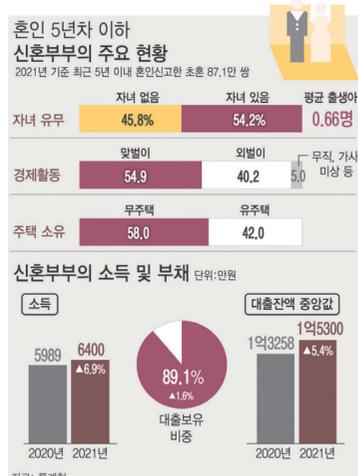
초혼 신혼부부 맞벌이 비중 54.9% '최대'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두 쌍 중 한 쌍 이상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맞벌이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보이면서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도 사상 처음 6000만원을 돌파했다.

신혼부부 평균 소득이 역대 최대를 보였지만, 이들 10명 9명은 금융권에 대출 잔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금 잔액 중앙값은 1억5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5.4% 증가했다.

통계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1년 신혼부부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매년 11월1일 기준으로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지



년(5989만원)보다 6.9%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연간 평균 소득이 6000만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5000만~7000만원 미만이 22.4%로 가장 많았으며 3000만~5000만원 미만 22.0%, 7000만~1억원 미만이 20.2% 순이었다. 1억원 이상도 14.8%로 집계됐다.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8040만원으로 외벌이 부부(4811만원)보다 1.7배 많았다.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은 혼인 1년 차 부부(6582만원)의 평균 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3년 차 부부(6122만원)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았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평균 소득은 7235만원으로 무주택자 부

부(5797만원)의 1.2배였다.

초혼 신혼부부 중 대출 잔액이 있는 부부는 전체의 89.1%(77만6818쌍)로 전년보다 1.6%p 증가했다. 대출 잔액 규모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작년 11월1일 기준 제1, 2금융권에서 받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 대출을 의미한다. 사채 등은 제외됐다.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금 잔액 중앙값은 1억5300만원으로 전년(1억3258만원)보다 15.4%(2042만원) 늘었다. 중앙값은 대출금을 받은 신혼부부를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을 의미한다. 대출 잔액은 1억~2억원이 30.7%로 가장 많았다.

대출 잔액 중앙값은 맞벌이 부부가 1억7211만원으로 외벌이 부부(1억3566만원)의 약 1.3배 높았다. 또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8575만원으로 무주택 부부(1억3000만원)보다 1.4배 높았다.

작년 11월1일 기준 초혼 신혼부부의 72.1%는 아파트에 가장 많이 거주했다. 전년보다는 0.4%p 상승한 수준이다.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전년보다 0.8%p 하락한 11.4%였다. 초혼 신혼부부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신혼부부는 42.0%로 전년보다 0.1%p 내려갔다. 혼인 1년 차의 주택 소유 비중은 30.7%이고 5년 차에는 51.9%로 연차가 높을수록 주택 소유 비중이 높았다.

뉴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흥호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계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